

광주 강·철도 발생률 전국 최고

■ 지난해 16개 시·도 강력범죄 분석

아동 실종 광주 3위·전남 5위

지난해 광주지역 강·철도, 강간, 폭력 등 강력사건 발생비율(인구 10만 명 당)이 전국 최고인 반면, 전남지역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범죄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모두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아동 보호를 위한 경찰과 지자체 등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무영 의원(무소속)이 9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전국 16개 시·도 강력범죄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은 166건이었다. 이를 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로 환산할 경우 11.48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 중 울산(16.1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총 65건의 강도사건이 발생한 전남은 10만명 당 3.59건으로 전국에서 강도사건 발생률이 가장 낮았다.

철도사건도 광주가 인구 10만 명 당 741.83건으로 울산(818.7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전남은 446.02건으로 경기(475.8건)에 이어 여덟 번째를 차지했다.

폭력사건은 광주가 746.81건, 전남이 629.0건으로 각각 2위와 8위를 기록했다. 강간은 광주가 20.76건(4위), 전남이 15.99건(11위) 발생했다. 반면 5대 강력사건 중 살인사건은 광주가 1.80(14위), 전남이 2.05(12위)로 비교적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살인사건 총 발생건수는 광주가 26건, 전남이 37건이었다.

아동실종은 광주가 23.2건(3위), 전남이 18.4건(5위)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발생률이 현저히 높았다. 총 아동실종 사건 발생건수는 광주가 335건, 전남이 333건이다.

또 성매매범죄는 광주가 전남보다

■ 2007년 광주·전남 주요 범죄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

범죄유형	광주	전남
살인	1.80	2.05
강도	11.48	3.59
철도	741.83	446.02
강간	20.76	15.99
폭력	746.81	629.01
성매매	79.05	41.93
아동실종	23.2	18.4

다소 적게 발생했다. 인구 10만 명 당 성매매범죄 발생건수는 광주가 79.05건(7위), 전남이 41.93건(4위)이다.

이 밖에도 ▲자살은 광주 26.18건(10위), 전남 22.80건(13위) ▲음주사고 광주 58.95건(12위), 전남 81.03건(4위) ▲식품사범은 광주 18.75건(7위), 전남 13.84건(11위)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광주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강력사건 발생비율이 높는데, 이는 경제상황 악화와 민생고 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며 "범죄지도를 만들어 자기 지역의 범죄현황을 알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치안인식 함양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형기자 golee@



“남도음식 들어가오” 남도의 맛이 한지리에 모이는 '제15회 남도음식문화대전'이 9일 순천시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대표들이 음식을 만들어 조상에게 올리는 상당행사를 재현하고 있다. '남도의 밥상, 한국인의 밥상'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오는 13일 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선박 용접 작업 도중 폭발 여수서 2명 사망·2명 부상

여수시 국동항에 계류 중이던 선박에서 용접 작업 도중 폭발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여수시 봉산동 국동항에 계류중인 183급 유조선 제2삼영호에서 인부들이 선체를 용접하던 도중 가스 폭발했다. 이 사고로 작업을 하던 인부 박모(53)씨와 기관장 김모(58)씨 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조기장 김모(60)씨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나자 해경은 122구조대와 경비정, 방제정과 순찰정 등 7척을 출동시켰으며 기름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침수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배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했다. 해경은 기름이 적체되지 않은 유조선 2번의 화물창 수리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 도중 탱크에 남아있던 가스가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김재균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채무 4억 신고 누락 혐의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오인서)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올해 4·9 총선 당시 자신의 빚 5천만원과 부인 주모(55)씨의 채무 4억여원 가량을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이 같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여러 증거를 수집한 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을 상대로 서

면 조사를 벌였으나, 답변이 미흡해 최근 다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의원이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서면 답변을 통해 "당 경선이 치러진 뒤 당선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일부러 채무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하며 "부동산 처분 과정 등에서 실수로 채무신고를 빠뜨린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광주 북구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구의회 의원들에게 영항력을 행사해달라며 빚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최근 최은초(63) 의장과 주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직접 영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 기소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623) 김장두



다 중의 건축 상담자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만능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점 : 061) 337-0571

후배 40여명 일 시키고 임금 가로채

○전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9일 중학교 폭력서를 후배들을 양식장에서 일

을 하도록 한 뒤 임금을 떼어온 순천모고교 2학년 A(17)군 등 2명을 폭력(공갈) 혐의로 불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B군(15·중2) 등 자신의 중학교 후배 40여명을 순천시 해룡면 포막양식장에서 종묘 작업을 하도록 한 뒤 1인당 일당 3만~3만5천원씩 모두 225만원을 양식업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이 과정에서 임금을 달라는 후배들에게 협박과 폭력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A군 등을 형사 입건하고 작업을 시킨 양식장 업주 3명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관련기관에 통보.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교통 법규 어기고... 과태료 안내고... '배짱 경찰'

광주·전남 815명 체납액 1억3천만원 달해

광주·전남 경찰 차량 758대가 최근 5년간 과속·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무인카메라에 적발됐고, 광주·전남 경찰 815명이 교통법규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1억3천508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9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전국에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경찰관은 경무관 1명, 중경 22명, 경정 531명을 포함해 1만3천72명이며, 체

납액은 20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4천584명(체납액 7억5천16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청 1천211명(1억9천638만원) ▲전북청 1천164명(2억2천963만원) 순이었다. 전남청의 경우 605명의 경찰이 9천698만원을 체납중이고, 광주청은 211명이 3천81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업무상 긴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경찰차량을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건수는 5천450건.

연도별로는 ▲2003년 214건 ▲2004년 497건 ▲2005년 907건 ▲2006년 1천777건 ▲2007년 1천451건이었으며, 올해 8월 말까지 1천304건이 적발돼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11%인 600건이 전남경찰청 소속 차량으로, 전국 지방경찰청 중 3번째를 차지했다. 광주경찰청 소속 차량도 158건(2.9%)이 포함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박우량 신안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동문회에 참석해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준 혐의로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53) 신안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9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 심리로 열린 박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군수가 업무 추진비로 격려금을 준 사실을 시인하는 등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 정상을 참작하고 소속 처당도 158건(2.9%)이 포함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네티즌 캐릭터 이름 거론 비방 유죄'

광주지법 순천지원

인터넷 게임상에서 네티즌의 캐릭터 명을 거론하며 자유게시판에 사실과 다른 사실을 유포한 행위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임형태)은 모 인터넷 게임의 자유게시판에 이모씨의 캐릭터 명을 거론하며 사실과 다른 생활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로 캐릭터 명을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오프라인상에서 사용하는 실명이 아닌 캐릭터 명을 언급하며 비방했는지라도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동료 회원들이 비방을 당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상에서 이씨를 비방하고자 자신과 이씨 등이 즐기던 인터넷 게임의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이씨의 캐릭터 명을 언급하며 생활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2008년 10월 25일(토) ~ 26일(일)

보성소리축제

2008. 10. 25.(토) ~ 26.(일)

서면보성소리축제관 / 보성소리축제관 특설무대

주최/주관 : 보성군 / 후원회 서면세 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문의 : 061-337-0571